

KOICA의 물 관련 국제협력과 전망



박 흥 식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보건의료팀 과장
hspark@koica.go.kr

1. 서론

1.1 KOICA 소개

한국국제협력단은 “함께 잘 사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숭고한 이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기술협력, 인적교류사업 등을 통합, 정부의 대개발도상국 무상원조를 전담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코자 1991년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이다. 그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크게 신장되었다. 그 결과 우리의 경제성장을 자국 경제발전의 모델로 간주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을 배우려는 개발도상국의 협력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협력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더불어 우리의 중장기적인 정치·경제적 국익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한국국제협력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개발 및 경제개발지원, 빈곤해소, 주민복지 증진 등 국제협력사업 수행에 따른 각종 효과 외에도 우리 상품과 기술의 해외시장진출, 국제 전문인력 양성, 상호이해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폭넓은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

개발조사, 인프라건축, NGO지원, 재난복구지원, 국제기구협력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www.koica.go.kr 참조)

1.2 한국의 ODA 역사

우리나라의 ODA는 1945년 해방이후 수원국으로 출발하여 현재의 공여국 위치에 이르기까지 약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5년 긴급구호자금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무상원조를 시작으로 1960년대에는 차관으로 전환되면서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됨으로써 수원대상국에서 졸업하였다. 이 기간동안 받은 무상원조 자금은 미국으로부터 3,933백만불(전체의 87%), UN으로부터 579백만불(13%)¹⁾이며, 유상원조자금은 1962년부터 1979년까지 158억불²⁾ 규모이다.

공여의 역사는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청(USAID) 원조자금에 의한 개도국 연수생 위탁훈련을 시초로, 1965년부터는 우리정부 자금으로 개도국 훈련생 초청 사업을 시작하여, 1967년 전문가파견을, 1977년 110만불 규모의 기자재를 개발도상국에 공여하였고, 1984년에는 건설부에서 현재의 개발조사사업에 해당하는 무상건설기술 용역사업을,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87년에는 EDCF 300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조성('06년말, 기금조성 총액은 1조 9,239억원/약 20억달러)하였고, 1991년 KOICA의 설립으로 원조사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1) 출처: 세계속의 한국경제(1993)

2) 출처: 한국의 금융정책(1995)

1.3 한국의 ODA 실시체계

ODA 형태	원조형태	실시기관	소관부처
양자간 ODA	무상원조(Grants)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타 공공기관	외교통상부, 기타 정부부처
	유상원조(차관/EDCF)	한국수출입은행(Korea EximBank)	재정경제부
다자간 ODA	국제개발금융기구 출연 및 출자	한국은행(bank of Korea)	재정경제부
	UN기구 출연	-	외교통상부, 기타 정부부처

2. 세계의 공적개발원조

2.1 공적개발원조의 종류와 역할

많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조적인 노력만으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세계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공적개발원조(ODA)이다. 개발도상국으로의 자금유입은 경제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총자원의 순 흐름인 ODA³⁾를 포함하여 크게 네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ODA이외에 기타 공적자금(OOF⁴⁾, Other Official Flows), 민간자금의 흐름(PF⁵⁾, Private Flows) 그리고 NGO에 의한 무상원조가 있다.

이러한 원조공여는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빈곤에 허덕이는 개도국을 돕는다는 인도주의적 목적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원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목적 그리고 원조를 통해 공여국의 수출과 민간투자를 증대시켜 공여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수지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록 하는 경제적 목적 등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부족과 일반적으로 낮은 저축률로 인한 국내 자금의 부족이 공적개발원조가 가장 절실한 주요 원인이다.

2.2 공적개발원조의 흐름

제2차세계대전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미국의 마샬플랜을 통하여 전후 유럽전역의 부흥을 지원한 것이 공적개발원조의 시발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신흥 독립국으로의 원조수요와 동서냉전체제하의 미국과 소련간의 경쟁이 이를 가속화시켰다. 1961년 마샬플랜의 집행기구인 유럽경제협력기구가 OECD의 개발원조그룹(DAG)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로 전환됨에 따라 개발원조에 관한 선진국의 본격적인 관심과 논의가 전개되었고, 그 이후 DAC의 공적개발원조 개념과 통계를 바탕으로 공여국의 GNI대비 ODA 0.7%의 국제 목표치를 제시한 “개발에 관한 Pearson 위원회 보고서”가 1970년 UN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경제 격차가 심화되어 개도국의 외채가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

3)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양허성 원조자금을 의미하며 상업자금보다 유리한 금융조건으로 제공됨
 4) 기타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s) : 공적자금이라는 면에서는 ODA와 같지만 금융조건이 ODA와 같이 유리하지 못한 자금으로 DAC 수원국 List Part II(구 동유럽 사회주의국가 및 선발개도국)에 지원되는 자금
 5) 민간자금의 흐름(PF, Prvite Flows) : 민간기업이 시장의 금융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주는 수출신용을 포함한 국제은행 용자, 직접투자, 증권투자, NGO에 의한 증여 등이 이에 속함

진국에서는 원조피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환경, 인적자원개발, 여성개발 등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였다.

이후 1990년대를 거쳐 2000년 미국의 뉴욕에서 개최된 UN총회에서는 빈곤감소를 목표로 새천년 선언을 채택하여 이를 바탕으로 8개의 개발목표를 제시한

새천년 개발목표(MGD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게 되었다. 8개의 개발목표는 빈곤감소, 초등교육의 보편화, 성 평등, 유아 사망률 감소, 산모건강 증진, HIV/AIDS 등 질병퇴치,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천년 개발목표(MGD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개발도상국의 국가적 주인의식(ownership)과 다차원적인 파트너십(partnership)이 MDGs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이며, 처음으로 전세계 정상들이 모여 지금까지의 어느 국제적 선언보다도 포괄적인 내용을 인준한만큼 국제사회의 지지가 강력할 것으로 기대됨
- 특징으로는 이해당사자간 목표 합의, ODA규모 합의(GNI대비 0.7%), 국제개발 협력의 시금석 제공, 범세계적인 안보와 직결,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목표 설정

표 1. MGDs의 세부목표

MGDs	세부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1. 절대빈곤 인구 반감	
	2. 기아인구 비율 반감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초등교육의 이수	
3. 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4. 교육에서의 성별간 차이 제거	
4. 아동사망률 감소	5. 5세이하 아동사망률 줄이기	
5. 모성보건 증진	6. 출산과 관련된 산모사망률 3/4감소	
	7. HIV/AIDS 확산방지 및 감소	
6. HIV/AIDS, 말라리아 등 기타 질병퇴치	8.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병억제 및 감소	
	9.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각 개별국가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자원 손실 보전	
7.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10.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환경에의 지속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의 반감	
	11. 2020년까지 최소 1억명의 빈민가 거주자의 생활여건의 상당한 개선	
	12. 이전보다 더 개방적이고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되며,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시스템 발전, 훌륭한 거버넌스, 개발 및 빈곤감소에 대한 국가적 및 국제적 공약 포함	
8.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13. 최빈국들의 특별한 요구수용, 최빈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수량제한조치 면제, 중채무국가들에 대한 부채탕감 및 양자간 국가채무 면제, 빈곤감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개도국들에 대한 보다 관대한 ODA 지원 포함	
	14. 내륙국과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 수용	
	15.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수준 유지를 위한 개도국 외채의 포괄적 해결	
	16.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청년층을 위한 적정하고도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의 개발 및 시행	
	17. 의약품회사와 협력하여 개도국 국민들이 적절한 가격에 필수약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18.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의 혜택, 특히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3.1 우리나라의 여건

앞에서 언급한 새천년개발목표에 동참하고 국제적 조화와 일치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공적개발원조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적인 제약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 둔화, 고유가와 원화 가치의 상승 그리고 급속한 인구 노령화의 진행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는 공적개발원조의 환경을 크게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ODA의 GNI대비 비중은 OECD DAC 회원국⁶⁾ 평균치 0.33% 보다 크게 낮은 0.10%(2005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3.2 공적개발원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나라의 개발원조는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단순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많은 자원을 수입

에 의존하고 수출과 무역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 절실한 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 수출과 국제관계에서 신뢰받는 국가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원조는 이러한 기초적 조건을 달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공적개발원조(ODA)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 물 관련 ODA 현황

4.1 개발도상국의 현황

깨끗한 식수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및 하수처리시설의 공급은 8개 MGDs중 하나이다. 유엔 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생시설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오염된 물로 설사병에 걸리며 이로 인해 하루 평균 5,000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질병 중 설사병은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퍼져나가는 질병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수가 폐렴이나 말라리아, 홍역 등 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초래하는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자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

표 2. DAC 회원국 및 우리나라의 ODA 지출액

(단위 : USD million)

Recipient		Developing Countries, Total				
Donor	Year	2001	2002	2002	2004	2005
	United States		11,429	13,290	16,320	19,705
Japan		9,847	9,283	8,880	8,922	13,147
DAC Countries, Total		52,435	58,292	69,085	79,410	106,777
Korea		172	207	245	331	463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6) OECD 회원국 중 DAC 미가입국은 한국,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8개국이며, 현재 DAC 가입국은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 22개국 임.

엔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소한의 물공급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2006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매년 200억 달러(약 19조36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세계의 물소비량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1인당 하루 물소비량이 평균 20리터에 불과한 반면 선진국의 1인당 하루 물소비량은 400리터에서 500리터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12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24억명이 적절한 하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또한, 세계 수자원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2050년에는 20억 명 이상이 물 부족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의 담수량은 감소하고 지하수 등 수자원 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약 80%가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4.2 OECD DAC 회원국의 물분야 ODA

DAC에서는 물 분야의 공적개발 분야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하수도 시설의 건설뿐만 아니라 수자원관련 정책, 계획 그리고 프로그램, 수자원관리법, 수자원개발 및 보호 그리고 이를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물공급과 하수도분야의 ODA 자금이 급격히 늘어남을 보여준다. 물분야의 DAC 회원국 양자간 ODA 자금은 2004년 3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다자간 공여 역시 2004년 18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줄어들기 시작한 이래 2001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다(그림 2 참조).

물분야의 주요한 공여국은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로 이들 5개국이 전체의 76%에 이르고 있다.(표 3 참조) 주요한 수원국은 중국, 이라크, 베트남, 팔레스타인, 인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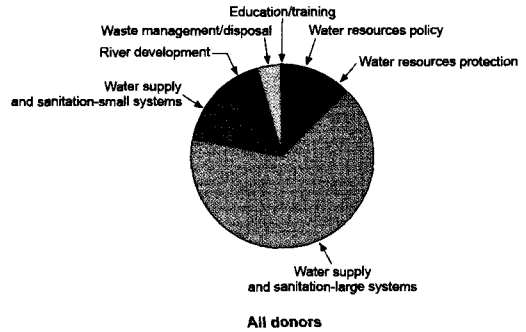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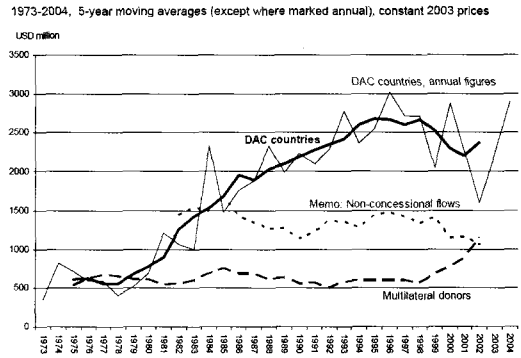


그림 1. 물분야 ODA 세부분야, 1997-2001 연평균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그림 2. 물분야 ODA 추세

2004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미국의 이라크 재건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 베트남, 마케도니아, 카자흐스탄에 많은 지원을 하였으나, 전체 ODA대비한 물분야 비중은 오히려 1999~2000년 평균 8%보다 2003~2004년 평균 6%로 감소하였다. 물분야의 가장 큰 공여국은 일본으로 '03~'04년 평균 ODA 지원금이 전체 DAC회원국의 33%에 이르는 8.58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물문제는 수자원의 부적절한 관리, 빠른 도시화 및 인구증가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주요 공여국 및 수원국의 물분야 년평균 ODA(2000-2004년)

(단위 : USD million)

Donor	Japan	Germany	United States	France	Netherlands	Other DAC countries	Total DAC countries
recipient							
China	222	5	1	6	4	37	275
Iraq	0	1	170	0	0	10	181
Viet Nam	52	10	0	17	7	30	117
Palestinian adm,areas	2	23	72	5	1	9	113
India	39	8	2	3	18	32	102
Jordan	6	24	45	0	0	12	87
Malaysia	80	0	0	0	0	1	81
Morocco	24	26	2	16	0	7	75
Peru	55	11	0	0	1	6	74
Tunisia	28	12	0	26	0	1	68
Other recipients	326	254	52	100	93	420	1,245
Total	835	375	344	173	124	567	2,417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표 4. 물분야 년평균 ODA 현황 및 비율(계속)

Donor	COMMITMENT						DISBURSEMENTS		
	USD million			% of Donor Total		% of All Donors		USD million	
	99-00	01-02	03-04	99-00	03-04	99-00	03-04	2003	2004
Australia	58	21	25	6	3	2	1	21	24
Austria	14	12	19	4	10	0	0	10	10
Belgium	13	37	19	4	3	0	0	11	19
Canada	35	23	80	5	7	1	2	27	33
Denmark	118	31	140	15	17	4	4	39	47
Finland	15	20	9	9	3	0	0	13	0
France	209	176	163	11	6	6	4	117	122
Germany	377	344	366	11	10	12	9	326	284
Greece	1	1	1	1	1	0	0	1	1
Ireland	8	13	18	7	7	0	0	20	16
Italy	45	32	30	11	6	1	1	14	5
Japan	1,159	512	858	13	11	36	22	856	862
Luxembourg	10	12	11	13	12	0	0	0	12
Netherlands	70	155	122	5	8	2	3	79	73
New Zealand	2	2	1	2	2	0	0	1	1
Norway	33	44	18	4	2	1	0	21	29
Portugal	9	1	1	5	1	0	0	0	2
Spain	90	59	63	10	7	3	2	87	74
Sweden	31	51	47	5	5	1	1	36	37
Switzerland	33	29	32	6	5	1	1	38	31
United Kingdom	151	101	52	5	2	5	1	66	54
United States	165	275	521	2	4	5	13	118	325
Total DAC countries	2,645	1,950	2,598	8	6	82	66	1,903	2,061

표 4. 물분야 년평균 ODA 현황 및 비율

Donor	COMMITMENT						DISBURSEMENTS		
	USD million			% of Donor Total		% of All Donors		USD million	
	99-00	01-02	03-04	99-00	03-04	99-00	03-04	2003	2004
AiDF	37	124	148	6	12	1	4
AsDF	50	177	137	4	9	2	3
EC	188	193	351	5	6	6	9
IDA	229	675	684	4	9	7	17
IDB Sp F	54	0	0	13	0	2	0
UNICEF	34	28	16	11	4	1	0
Total Multilateral	593	1,197	1,335	6	8	18	34
Total	3,238	3,147	3,934	8	7	100	100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4.3 KOICA의 물분야 ODA

KOICA에서 주도하는 무상원조의 규모는 2005년 2,151억원으로 10년전인 1996년의 432억원에 비해서 약 5배가 증가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상원조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ODA는 GNI 대비 0.06%로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식수공급 및 위생분야의 ODA규모는 금액면에서 2005년 68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ODA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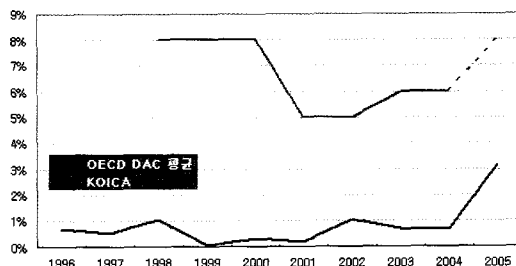


그림 3. 전체 ODA대비 물분야 ODA 비율

표 5. KOICA의 물분야 년평균 ODA 현황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ODA 총계	43,250	52,761	53,776	45,116	51,276	69,718	77,664	147,900	203,408	215,120
식수및위생분야 ODA	303	296	564	34	164	140	834	1,055	1,375	6,800
전체 ODA 대비	0.70%	0.56%	1.05%	0.07%	0.32%	0.20%	1.07%	0.71%	0.68%	3.16%
양자간 총계	303	267	487	34	164	140	834	1,055	1,375	6,800
프로젝트	237	194	470	0	0	0	673	620	8	6,331
물자지원	0	37	0	0	36	32	0	0	27	0
기술협력	66	36	17	34	128	108	162	435	1,341	469
개발조사	13	5	0	0	0	0	0	24	639	67
연수생	0	0	0	0	68	69	89	308	643	339
전문가	0	7	0	7	26	12	33	50	35	63
봉사단	53	25	17	27	34	27	40	52	24	0
다자간 총계	0	29	77	0	0	0	0	0	0	0
기술협력	0	29	77	0	0	0	0	0	0	0

이 수치는 2004년까지 1%미만이었으나 이라크 상하수도 지원사업비가 반영되어 3%대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는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인 6%~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그림 3 참조).

5. 물분야 ODA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

5.1 물분야 ODA의 중요성

생명의 필수제인 물은 생존뿐만 아니라 산업 및 경제활동의 원동력으로 물부족의 해소는 국가발전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된 환경요소이며, 21세기 지구적·국가적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물분야의 공적개발자금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서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물분야 ODA의 중요성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도시빈민들에게 있어서 안전하고 저렴하며 지속적인 물공급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MDGs의 주요한 목적인 지속가능한 환경확보의 세부목표(세부목표 10,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 환경에의 지속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의 반감)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OECD DAC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물분야 ODA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8%대를 유지하는 등 저가의 안전한 물공급에 지속적인 공여를 하고 있다.

또한 물분야 ODA는 MDGs의 목표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목표3. 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과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물은 전력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역점을 둔 사회기반시설 중의 하나가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의 건설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외국의 공적개발자금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력 발전을 포함하는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건설이 이루

어졌다. 셋째, 우리나라의 건설 및 건설시장의 세계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함의도출이 어려운 다목적댐의 건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상수도분야 역시 추가적인 시설규모의 확장은 불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세계의 물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미 그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향후에는 석유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므로 물산업분야의 세계시장 진출은 국내 물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 되었고,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물분야 ODA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의 물시장은 프랑스(Veolia, Suez, Saur), 영국(Severn Trent, United Utility), 독일(RWE) 등 유럽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기술 부족과 자원 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개발도상국에는 상수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정적인 물공급이 어려운 약점 때문에 다국적 물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식수 및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사업에 동참한 것이 물을 사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확대에 바탕을 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T)'은 '물의 사유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이론적 근거로 기금 총액이 10억유로에 달하는 '유럽연합 물 기금'을 통해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77개국의 상수도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베올리아, 수에즈, 서번 트랜트, 벡텔 등 다국적 물관리 기업들은 1990년대 상수도를 민영화한 중남미와 만성적인 물부족에 시달려온 아프리카를 집중공략, 상수도 관리권을 획득하여 수도요금을 통해 많은 수입을 올려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분야 건설링이나 운영관리에서 세계시장 진출은 아주 미미하여 공기업으로는 수자원공사가 해외시장 진출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이런 상황에서 KOICA가 전체 ODA대비 물분야 ODA 비율을 점차 OECD DAC 회원국 수준으로 늘려가고 이를 통해 국

표 4. KOICA의 물분야 년평균 ODA 현황 및 비율

(단위: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증가율
ODA 총계	6,321	7,115	8,437	9,605	17.50%
무상원조	2,086	2,331	2,766	3,356	16.40%
- KOICA	1,880	2,100	2,492	3,024	
- 기타부처	206	231	274	332	
EDCF	2,630	3,044	3,534	4,036	12.40%
다자간 원조	1,605	1,740	2,137	2,213	10.60%
GNI(조원)	762	823	889	961	8.00%
ODA/GNI(%)	0.08%	0.09%	0.10%	0.10%	

내기업이 물분야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으로 삼는다면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점차 늘어나는 세계 물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2 물분야 ODA 향후 전망

우리나라 정부는 2005년 4월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를 통해 ODA 운영체제 효율화를 전제로 2009년까지 ODA규모를 GNI대비 0.1%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09년 KOICA를 통한 무상원조는 3천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2010년 유엔의 권고안인 0.5%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물분야 ODA의 경우 2004년 이전의 물분야 ODA규모는 전체 ODA규모 1% 미만이었으나, 2005년 이라크 재건사업 중에 하나인 상하수도분야를 지원하면서 3%를 넘어섰으며,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ODA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범위가 아시아권을 넘어서 아프리카 중남미를 비롯한 만성적인 물부족국가에 대한 지원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물분야 ODA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KOICA가 지원하는 물분야 ODA를 기반으로 국내 물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역시 더욱 더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물분야의 특성상 무상원조뿐 아니라 유상원조의 형태로 많은 지원이 예상되므로 EDCF로도 많은 사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